

**FIRST LANGUAGE KOREAN**

**0521/11**

Paper 1 Reading

**May/June 2018**

INSERT

**2 hours**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for use with the Question Paper.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This Insert is **not** assessed by the Examiner.

먼저 다음 설명을 잘 읽으십시오.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이 첨부 시험지 공란에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시험지에 쓴 연습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This document consists of **5** printed pages and **3** blank pages.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A**

아래 글은 이청준의 소설 <눈길> 가운데 일부입니다.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 속에서 별러 오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나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본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5  
 나는 이제 내친걸음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 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말아 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 가지 않고…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 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 갈 줄 알았더니…” 10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 먼 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야 하겠냐. 넌 항상 금방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 가도록 하거라.” “오늘 하루는 쉬었지 않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리는 걸요. 찾길이 훨씬 15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기서 아직도 서울이 천리 길이라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오지 않구선…”  
 노인 대신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보았다.  
 그건 물론 나의 주변머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것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20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미리 다 처리해 둔 것을 그녀에게는 내가 말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려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정스런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닭 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 25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 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 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나.”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에미라고 이렇게 먼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는 내 맘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30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표정으로 장죽 끝에 풍년초를 꺾꺾 눌러 담기 시작한다.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걸을 조금씩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매정스런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35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꺾꺾 눌러 채우고 앉아 있는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40
- 지열이 후끈거리는 뒤꼍 콩밭 한가운데에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가 하나 있었다. 그 오리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 콩밭 아래로 내려다보니 집이라고 생긴 게 꼭 습지에 돌아 오른 여름 버섯 형상을 닮아 있었다.
-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빛 문서라도 불쑥 불거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 애초의 허물은 그 빌어먹을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 때문이었다. 묵은 빛이 불거져 나올 것 같은 불편스런 기분이 들게 해 오는 것도 그랬고, 처음 예정을 뒤바꿔 하루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 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빛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빛이 있을 수 없는 몇몇한 처지였다. 45
- 노인도 물론 그 점에 대해선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 “내 나이 일흔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라더냐.” 50
- 이가 완전히 삭아 없어져서 음식 씹기가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 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의치라도 해 끼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나의 말 선심에 애초부터 그래 줄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랬던지 노인은 단자리에서 사양을 해 버리는 것이었다.
- “이럭저럭 지내다 이대로 가면 그만일 육신, 이제 와 늘그막에 웬 딴 세상을 보겠다고...”
- 한번은 또 치질기가 몹시 심해져서 배변이 무척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 본 일도 55 있었다.
- 노인은 그 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 “나이를 먹어도 아녀자는 아녀자다. 어떻게 남의 눈에 곱은 데를 보이겠더냐. 그냥저냥 참다 갈란다.”
-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 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게 60 주장하거나 돌려 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 Text B

아래 글은 박완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의 일부입니다.

엄마는 또 내 귓가에 소근소근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로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 히사시까미<sup>1</sup>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좋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뽀족구두 신고 핸드백도 들고 다닌단다.” 5

내가 히사시까미, 핸드백에 전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 기찻간을 한번 골고루 휘둘러보고  
나서 저기 저 여자의 머리가 히사시까미<sup>1</sup>, 조기 조 여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는 게 한도바꾸 하는  
식으로 실물을 견학까지 시켜가며 열성스럽게 신여성이 뭔가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기찻간에 한몸에 그 여러 가지 신여성의 구색을 갖춘 여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 10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춘 신여성이라는 걸 상상하긴 어렵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실망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한 다홍 댕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버선코가 보일락말락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고름이  
달린 노랑저고리를 받쳐 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나는 한창 고운 물색에 현혹돼 있었기 때문에  
신여성의 구색인 검정치마, 검정구두, 검정 핸드백이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다. 15

“신여성은 뭐 하는 건데?”

나는 내가 고운 물색으로 차려 입고 꼭 하고 싶은 게 널이나 그네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은 몹시 난처해 보였다.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얼굴을 잘  
했다.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할 때라든가,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할 때 어른들은 그런 얼굴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려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생글거리면서 20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나는 신여성의 걸모양을 그려보았을 때보다도 더 크게 실망했다. 신여성이  
그렇게 시시한 걸 하는 건 줄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걸 안하겠다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기차는 25  
척척폭폭 무서운 속도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어둑해질 무렵 경성역에 내렸다. 경성역은 아닌게아니라 컸다. 컸기 때문에 도리어 전모를  
파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생전 처음 보는 인파에 휩쓸리면서 엄마를 놓칠까봐 조마조마하는 게  
고작이었다. 엄마는 할머니가 여다 준 짐까지 합해서 세 개나 되는 보따리를 이고 들고 구름다리를  
오르내리느라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었다. 치마꼬리에 매달리는 것도 싫어했다. 30

<sup>1</sup>히사시까미: 앞머리를 부풀려 모자 차양처럼 내밀게 한 머리

정신 없이 밖으로 빠져나오자 지게꾼이 우루루 몰려왔다. 어떤 지게꾼은 엄마한테서 막 짐을 뺏으려고 했다. 엄마는 짐이 바로 조오기라고 턱으로 길건너를 가리키면서 지게꾼을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의 포위를 뚫었다. 나는 나까지도 엄마의 뿌리침을 당하는 것 같아 악착같이 엄마의 다리에 휘감겼다. 지게꾼들도 만만치는 않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줄줄 따라오고 있었다.

엄마는 걸음을 조금씩 더디게 걸으면서 망설이는 눈치더니 못 이기는 체 흥정을 시작했다. 35

“현저동까지 얼마에 갈 테유?”

“마님도, 조오기라시더니 현저동 꼭대기가 조오기라굽쇼?”

나는 험악하게 생긴 지게꾼의 얼굴에 경멸이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다. 도시의 집단 속에서 엄마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동백기름을 발라 늘 곱게 빗어 쪽지던 머리가 힘겨운 짐을 이었다 내렸다 하는 새에 헝클어지고 끈두선 것도 보기 싫었다. 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슬픔이 복받치는 걸 느꼈지만 울음을 터뜨리진 않았다. 40

엄마와 지게꾼은 지게삿을 놓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지게꾼은 그 상상꼭대기라고 했고, 엄마는 높기는 좀 높지만 상상꼭대기까진 아니라고 했다. 도대체 그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그러는지 엄마를 따라오던 지게꾼들은 다 슬금슬금 흩어지고 제일 늙수그레한 이 혼자만 남았다. 엄마는 그 늙은 지게꾼과 흥정이 끝나 짐을 올려놓으면서도 생색을 냈다. 45

“내가 노인 대접을 해서 쳐주는 거요.”

“저도 마수걸이만 했어도 그 상상꼭대기 천금을 쥐도 안 갑니다요.”

말끝마다 꼬박꼬박 상상꼭대기라네, 되지 못한 늙은이 같으니라구. 엄마는 포개놓은 세 개의 짐에 머리끝까지 가려서 경정경정 뛰다시피하는 두 다리만 보이는 지게꾼을 향해 조그만 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흥정이 그렇게 끝난 건 나한테는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마음놓고 엄마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지게꾼을 따라 경정경정 뛰다시피 했지만 지게꾼은 줄창 저만큼 앞서가고 있었다. 50

“엄마 전찬 어디 있어?”

엄마는 이마에다 더듬이 같은 걸 달고 철길을 달리고 있는 걸 말없이 손가락질했다. 그건 끝간데 없이 서리서리 길고 시꺼멓던 기차에 비해 상자갑처럼 만만해 보였다. 기차가 구렁이라면 전차는 배주벌레였다. 전차 속에서 아이들이 밖을 내다보며 웃고 있었다. 엄마는 전차에 대한 관심을 판 데로 끝 속셈이 들여다보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 철길 없이 달리는 자동차에 대해, 사람이 끄는 인력거에 대해, 새빨간 불자동차에 대해, 엄마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55





**BLANK PAGE**

---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ie.org.uk](http://www.cie.org.uk)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